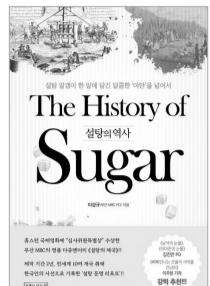


설탕의 달콤함 뒤 ‘야만의 역사’ 파헤치다

설탕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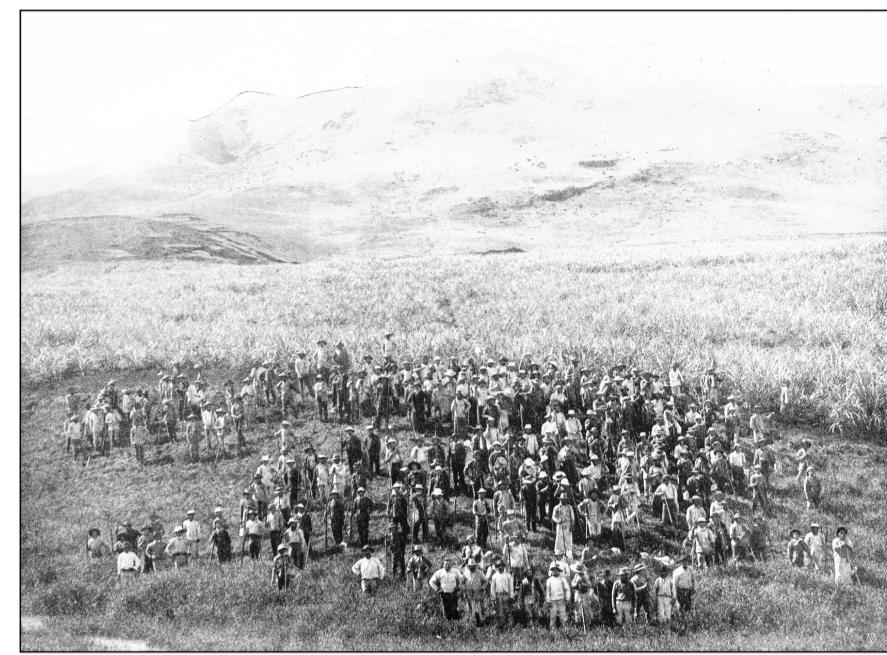
이성규 지음



“인도인들은 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단맛을 납니다.” BC 327년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인도 원정에 나선 네 아르쿠스 장군은 현지에서 접한 ‘설탕’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달콤한 갈대(Sweet Reed)’라고 불렸던 설탕은 이후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간다. 귀하고 값비싼 약재이자 사치 품이었던 설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결합하며 인류 최초의 ‘세계 상품’이 됐다. 인류에게 설탕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등 인류 문명사를 뒤흔든 설탕의 ‘달콤함’ 뒤에는 흔한 노예들의 삶을 담보로 한 야만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성규 부산 MBC PD가 펴낸 ‘설탕의 세계사’는 동명의 4부작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서다. 2년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하와이, 자메이카, 쿠바, 영국 등 10개국을 찾아 설탕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왔는가 추적한 다큐는 제52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영화 버전으로 재편집돼 부산푸드필름페스티벌 등에서 상영됐다. 다큐를 기반으로 한 책인만큼 생생한 현장 취재와 세계적인 음식 역사학자 아이반 데이 등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설탕의 빛과 그림자를 자본, 제국, 노예, 해적, 아주, 문화가 얹힌 세계사로 설명한 책은 서구 중심의 역사를 넘어 ‘한국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설탕의 문명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설탕의 장대한 역사를 풀어나감과 동시에 설탕에 얹힌 한국의 하와이 이민사, 한국의 기업사까지 함께 소개한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과 노동자들의 모습. 〈우물이 있는 집 제공〉

책은 설탕의 제국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세 주역을 언급한다. 거실에서 차와 함께 설탕의 단맛을 음미하는 설탕 농장주 젠틀맨,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팔려간 1000만명에 달하는 노예, 자비와 억압으로 나뉜 시대에 반기를 들고 지배와 착취 시스템에 균열을 낸 저항의 상징 해적이 그들이다.

설탕은 산업혁명, 식민지 개척, 노예무역, 세계 경제의 재편까지 인류사를 흔든 결정적

동력이었다. 영국 산업 혁명의 자본은 공장이 아닌,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됐고 일본 메이지 유신의 재정 기반의 배후에는 사탕수수와 설탕 산업이 있었다. ‘반도제의 상장’이 된 삼성 역시 1953년 제일제당을 세우고 국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한 설탕 사업이 그룹의 기반이 됐다.

‘폭력과 수탈’이라는 제국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예들의 삶과 저항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취지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힌 노예들이 걸어가야 했던 카리브해 연안 국가 바베이도스의 ‘노예의 길’, 탈주 노예들의 마을 ‘마룬’, 저항을 담은 무술 ‘키포에아리’, 레게 음악 등이다. 더불어 카리브해 15개 국가들이 조직을 구성, 서구 국가들이 노예들을 이용한 설탕 무역으로 축적한 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설탕소송’도 소개한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사진 한장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후 하와이로 떠나야했던 ‘사진 신부’ 이야기는 아픈 대한민국의 현대사다. 꾹꾹한 삶 속에서도 하와이의 여성들은 1908년 신병부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며 상해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는 등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이를 이 하와이에서 만든 독립선언서는 지금까지 전해진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불평등, 아주 노동자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설탕이 만들어낸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설탕의 역사는 우리에게 착취와 폭력 그리고 횡暴성이 지배해온 야만의 역사를 보여준다”며 “설탕 알갱이 한 알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착취와 폭력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우물이 있는 집·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술·거문고…렌즈를 통해 흐르는 시의 숨결

북창삼우

김종희 지음



짧은 글과 한 장의 사진이 발현하는 깊은 울림.

오늘날 ‘디카시’는 사진작가나 시인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다 시를 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이들에게 디카시는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한 예술이다.

문학 애호가뿐 아니라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나 문인들에게 디카시는 매력적인 예술의 분야로 자리잡았다. 사물과 풍경, 사람과 시간에 드리워진 섬세하면서도 미세한 순간을 포착해 형상화할 수 있어서다.

황순원문학총 소나기마을 촌장인 김종희 전 경희대 국

문과 교수가 다섯 번째 디카시집 ‘북창삼우’를 펴냈다.

제4시집 ‘영감과 섬광’ 이후 1년 6개월 만에 펴낸 이번 시집은 문학의 고적한 미와 깊은 사색의 흔적이 담겨 있다. 사진과 함께 수록된 터라 읽는 맛, 보는 맛, 생각하는 맛을 전한다.

김종장은 “내게 있어 시는 사유를, 취향은 문형을, 그리고 음률은 삶의 리듬을 뜻한다”며 “이렇게 디카시는 내 일상의 예술이요, 예술의 일상이 되었다”고 전했다.

표제인 ‘북창삼우’(北窓三友)는 저자의 관심과 지향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보여준다. 옛날 선비의 방에는 세 가지 벗이 있었는데 시, 술, 거문고가 그것이다. 함께 어우러지면 예술의 지극한 경지를 맛볼 수 있어 예로부터 선비들이 가까이했다.

“가을날 수듯단 같은 원추형 지붕/ 눈 내린 겨울날에 한껏 고즈넉하네/ 이 소박한 품위 작가는 짐작 했을까” (‘설경 문학관’ 전문)

눈 내린 문학관 풍경을 압축적인 시와 아름다운 사진

으로 구현했다. 시와 사진이 조화를 이룬 절정이다. 저자에게 카메라는 기록의 도구보다 사유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렌즈에 비치는 사물이나 대상이 ‘시각 언어’인 사진으로 전이될 때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감성이 열린다.

시집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시인의 일상생활 공간이 주 소재다. ‘설경 문학관’, ‘노을 진 노송’ 등 자연에서 끌어온 풍경과 시를 조합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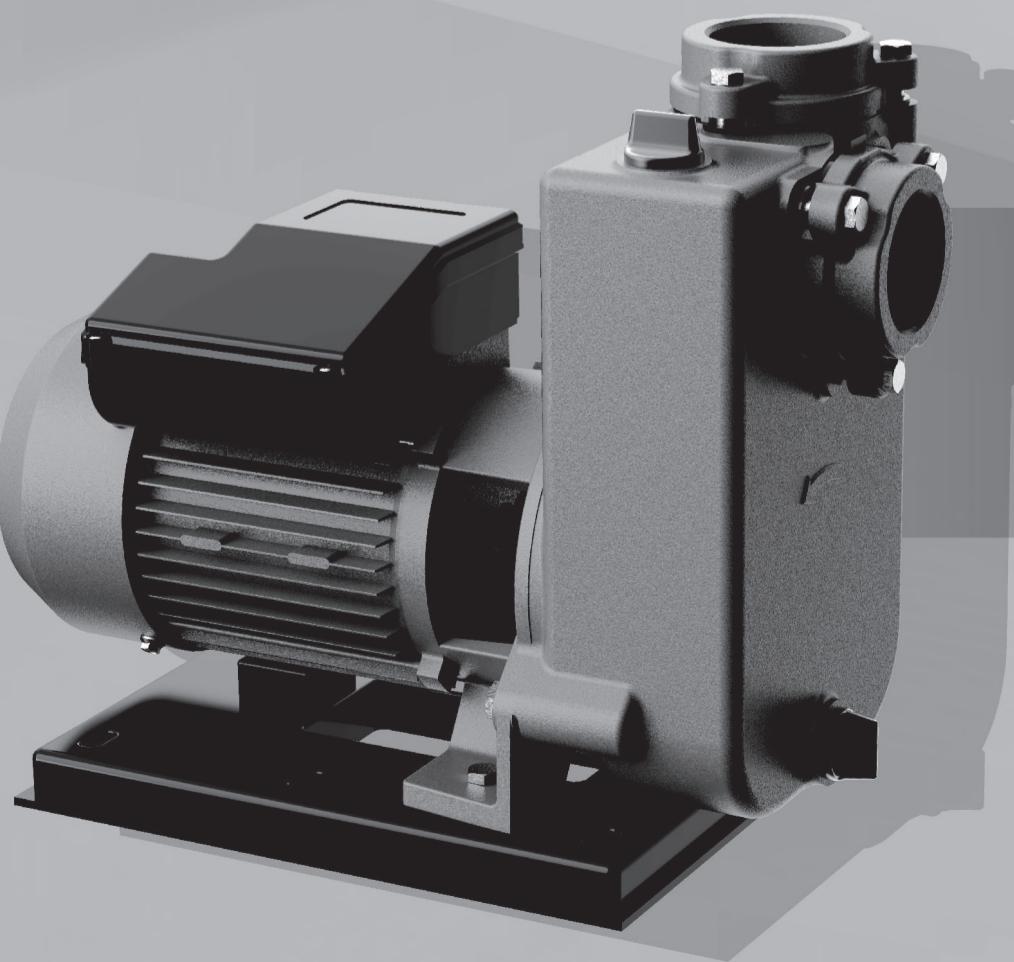
2부는 손녀가 만들어 낸 일상의 장면들로 ‘곰돌이’, ‘작은 공주님’ 등 작품이 수록돼 있다.

3부는 바다나 산 등에서 길어 올린 시간을 담았다. ‘유달산 목포’, ‘목포 비너스’ 등은 고유한 기운과 이미지를 발한다.

이승희 교수의 영문 번역도 함께 수록돼 있어 보다 깊고 차원이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상상인·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새로 나온 책

▲불티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조효제 지음)=기후·생태·사회 위기를 하나의 ‘문명 위기’로 보고 탄소자본주의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임시처방 같은 대응을 넘어 삶의 방식·생산과 소비 구조·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태사회주의·에코페미니즘·탈성장 등 다양한 전환 서사를 아우르며 녹색 민주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창비·2만4000원〉



진다. ‘기억’과 ‘타인’이라는 테마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우리를 만든 모든 사랑의 형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문학동네·1만6000원〉

▲병원에 간 과학자(김병민 지음)=암 진단을 계기로 병원에 머무르게 된 화학자가 X선·MRI·CT 같은 의료 기술과 그 뒤에 놓인 과학의 원리를 따라가며 ‘암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생명의 속명’임을 담고자 한다. 연인, 친구, 사랑했던 남자, 평생 이해하기 어려웠던 엄마 등 삶을 형성해온 관계의 조각들이 네 개의 장면으로 펼쳐진다. 연인과 친구, 사랑했던 남자, 평생 이해하기 어려웠던 엄마 등 삶을 형성해온 관계의 조각들이 네 개의 장면으로 펼쳐진다. 〈현암사·2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가 사는 지구는 천천히 멸망 중(주민현 지음)=기후 위기로 달라지는 지구의 모습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담아낸 시집이다. 일상의 언어로 포착한 기후 변화의 현실과 청소년들의 불안·관계·미래에 대한 고민이 나란히 놓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토닥이는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거대한 재난을 두려워만으로 그리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작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쉬는시간·1만2000원〉

▲출주고 싶은 트리(도원 지음)=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지만,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꼬마 트리 ‘루트’는 축제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결국 투리는 물레 숲으로 달아나 자신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찾아 나서고, 작은 새와 숲속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며 비로소 진짜 축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나답게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하는 이야기.

〈노린상상·1만6000원〉